

2. 라틴아메리카 경제지표 2013

권기수

I. 거시경제지표

	단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중남미전체
GDP		4.5	2.3	4.2	4.0	1.3	5.2	1.2	2.6
1인당 GDP	% (연증기율)	3.6	1.7	3.3	2.6	0.2	4.0	-0.3	1.5
소비자물가 상승률		10.6	6.2	1.9	2.0	3.8	2.8	38.5	7.0
GDP	10억 달러	495.3	2,213.5	281.3	375.3	1,277.1	211.8	368.0	5,977.2
GDP (구매력기준)		1,002.6	2,339.9	334.3	432.8	1,869.7	340.7	410.8	7,978.3
1인당 GDP	달러	11,951	11,047	15,964	7,793	10,439	6,971	12,104	9,704
1인당 GDP (구매력기준)		24,191	11,678	18,976	8,986	15,284	11,216	13,510	12,953
실업률	%	7.3	5.4	6.0	11.0	4.9	5.9	7.5	7.5
총외채 (GDP 대비)		135.0	318.0	124.5	85.1	231.5	62.3	118.8	1,222.4
수출	10억 달러	83.1	242.2	77.4	58.5	380.2	41.6	90.8	1,192.4
수입		71.5	239.6	75.0	58.6	381.2	42.2	56.3	1,144.0
무역수지		11.6	2.6	2.4	-0.1	-1.0	-0.6	34.5	31.0
외환보유고		33.2	364.5	40.8	43.3	177.2	66.5	21.8	832.1
외국인직접투자 (FDI)		9.0	61.9	9.5	13.7	24.6	12.0	3.2	149.1
경상수지	% (GDP 대비)	-0.9	-3.7	-3.7	-3.4	-1.4	-4.9	2.1	-2.3
재정수지		-2.2	-3.0	0.7	-2.0	-2.3	1.8	-11.2	-2.9

주 | 2013년 국별 통계의 일부는 각 기관의 추정치
 자료 | 경제성장률, 총외채, 외환보유고, 정부부채, 순외국인직접투자(FDI)는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나머지 지표는 Global Insight 참조

II. 실물경제지표

1. 경제성장률

:: 2013년 중남미 경제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 우려에 따른 외환·금융시장 혼란과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2012년 이어 2%대의 저성장세에 그침.

| 지역별로 중남미 경제는 서고동저(西高東低)형의 성장세를 보임.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안데스지역 태평양 경제권(중남미 서쪽)이 경제성장을 견인함.

| 그에 반해 대서양 경제권(중남미 동쪽), 즉 남미공동시장(MERCOSUR) 경제권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로 2012년과 비슷한 저성장세에 그침.

| 국별로는 페루가 5.2%로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했으며, 아르헨티나(4.5%), 칠레(4.2%), 콜롬비아(4.0%)가 그 뒤를 이음.

| 그에 반해 중남미 경제의 양대 성장엔진인 브라질(2.3%)과 멕시코(1.3%) 경제의 성장률은 중남미 평균을 하회함.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아르헨티나	0.9	9.2	8.9	1.9	4.5
브라질	-0.3	7.5	2.7	1.0	2.3
칠레	-1.0	5.8	5.9	5.6	4.2
콜롬비아	1.7	4.0	6.6	4.2	4.0
멕시코	-4.7	5.1	4.0	3.9	1.3
페루	0.9	8.8	6.9	6.3	5.2
베네수엘라	-3.2	-1.5	4.2	5.6	1.2
중남미	-1.3	5.8	4.1	2.7	2.6

주 | 2013년은 ECLAC 추정치, 브라질은 실제치
자료 | Global Insight.

2. 산업 생산

:: 경제성장 둔화를 반영해 중남미 지역의 산업생산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

| 국별로는 페루, 브라질,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업생산이 감소 내지 정체를 보임.

주요국의 산업생산증가율 추이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아르헨티나	0.1	9.7	6.5	-1.2	-0.2
브라질	-7.4	10.5	0.4	-2.5	1.1
칠레	-6.7	3.2	8.0	2.2	-0.4
콜롬비아	-4.8	4.3	5.0	-0.3	-1.9
멕시코	-6.2	4.6	3.4	2.6	-0.5
페루	-7.2	14.1	5.6	1.3	1.6
베네수엘라	-11.9	-2.5	1.8	1.9	0.9
중남미	-6.5	7.3	2.5	-0.3	0.5

주 | 2013년은 추정치
자료 | Global Insight.

3. 민간 소비

:: 교역조건 악화를 반영해 2013년 중남미 지역의 민간소비증가율은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3.1%를 기록해 2010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 국별로는 2013년 총선을 치른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 증가세가 둔화 | 아르헨티나(7.4%), 페루(5.3%), 칠레(5.3%), 베네수엘라(4.1%), 콜롬비아(3.9%)가 중남미 평균 이상의 소비증가율을 기록한 데 반해 브라질(1.9%), 멕시코(2.6%)는 평균 이하의 낮은 소비증가세를 기록함.

주요국의 실질민간소비증가율 추이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아르헨티나	0.5	9.0	10.7	4.4	7.4
브라질	4.5	6.9	4.1	3.2	1.9
칠레	-0.8	10.8	8.9	6.1	5.3
콜롬비아	0.6	5.0	5.9	4.7	3.9
멕시코	-6.5	5.3	4.9	4.7	2.6
페루	2.4	6.3	6.2	5.8	5.3
베네수엘라	-2.9	-1.9	4.0	7.0	4.1
중남미	-0.1	6.0	5.1	4.0	3.1

주 | 2013년은 추정치
자료 | Global Insight.

4. 투자

가. 투자(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 2013년 중남미 지역의 투자는 기계 및 장비에 대한 투자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함.

| 국별로는 페루(7.0%), 브라질(6.5%), 아르헨티나(5.6%)가 중남미 지역의 투자 증가를 견인함.
| 그에 반해 베네수엘라(-5.8%), 멕시코(-1.7%)의 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주요국의 투자 증가율 추이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아르헨티나	-10.2	21.3	16.6	-4.8	5.6
브라질	-6.7	21.3	4.7	-4.0	6.5
칠레	-12.1	12.2	14.7	12.3	5.0
콜롬비아	-1.3	4.9	18.7	7.6	5.6
멕시코	-9.3	1.3	7.9	4.6	-1.7
페루	-9.2	23.2	4.8	14.8	7.0
베네수엘라	-8.3	-6.3	4.4	23.3	-5.8
중남미	-8.3	11.6	8.1	2.5	3.6

주 | 2013년은 추정치
자료 | Global Insight.

나. 외국인직접투자(FDI)

::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중남미경제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주요 투자 대상으로 주목을 받음.

| 그 결과 2013년 대중남미 순외국인직접투자(FDI)는 1,49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국별로는 브라질(619억 달러), 멕시코(246억 달러), 콜롬비아(137억 달러), 페루(119억 달러) 순으로 많은 FDI를 유치함.

주요국의 순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말 기준)

	2009	2010	2011	2012	2013
아르헨티나	3,307	6,884	9,232	11,076	9,029
브라질	36,033	36,917	67,690	68,095	61,924
칠레	5,654	5,912	2,557	9,233	9,501
콜롬비아	3,789	-139	5,099	15,592	13,675
멕시코	8,940	7,582	11,168	-7,782	24,600
페루	5,165	7,062	8,119	12,297	11,979
베네수엘라	-4,374	-1,462	4,919	756	3,152
중남미	70,226	76,516	126,269	128,848	149,056

주 | 순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과 중남미 국가들의 해외직접투자의 차(差)를 의미함. 2013년은 추정치 자료 | ECLAC.

다. 투자율

:: 지속적인 투자 증가세에 힘입어 2013년 중남미 지역의 투자율(GDP대비)은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23.0%를 기록

| 국별로는 페루가 35.5%로 가장 높은 투자율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콜롬비아(28.8%), 칠레(28.4%)가 차지함.

| 그에 반해 브라질(21.3%)은 중남미 평균이하의 낮은 투자 수준을 기록

주요국의 투자율 추이

(단위: %, GDP 대비)

	2009	2010	2011	2012	2013
아르헨티나	22.2	24.7	26.4	24.7	25.2
브라질	18.3	20.6	21.0	19.9	21.3
칠레	22.6	24.0	26.0	27.7	28.4
콜롬비아	24.0	24.2	26.9	27.8	28.8
멕시코	22.4	21.5	22.4	22.5	22.2
페루	25.0	29.0	29.6	32.0	33.5
베네수엘라	25.4	24.2	24.2	22.5	23.4
중남미	20.6	21.5	22.4	22.3	23.0

자료 | ECLAC.

5. 수출입,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가. 수출

::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일차산품 수출 가격 하락과 이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로 2013년 중남미 지역의 수출은 0.6% 증가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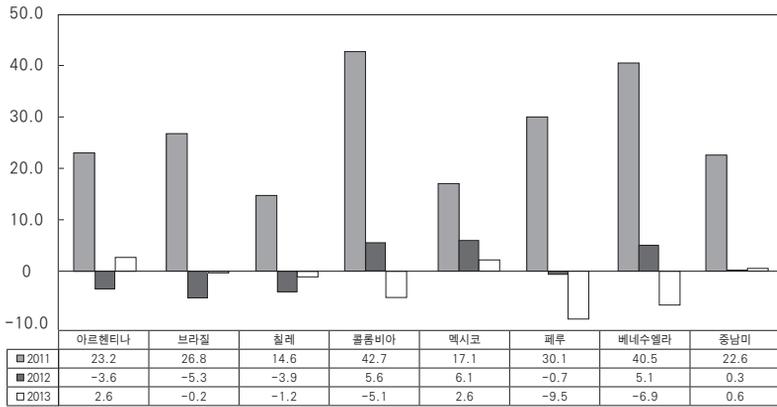
| 2013년 중남미 지역의 교역조건은 전년보다 2.5% 하락했음. 특히 광물 및 금속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남미지역의 교역조건 하락세(-2.8%)가 두드러짐.

|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아르헨티나(전년비 2.6% 증가)와 멕시코(2.6%)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

| 페루가 -9.5%로 가장 큰 폭의 수출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베네수엘라(-6.9%), 콜롬비아(-5.1%), 칠레(-1.2%), 브라질(-0.2%)이 이음.

주요국의 수출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 대비)



자료 | Global Insight.

:: 수출 증가세 둔화로 2013년 중남미 지역의 수출은 2012년보다 70억 달러 증가한 1조 1,924억 달러에 그침.

| 국별로는 멕시코가 3,806억 달러로 가장 큰 수출액을 기록했으며, 브라질(2,422억 달러), 베네수엘라(908억 달러), 아르헨티나(831억 달러), 칠레(774억 달러)가 그 뒤를 이음.

주요국의 수출 추이

(단위: 10억 달러)

	2009	2010	2011	2012	2013
아르헨티나	55.6	68.1	83.9	80.9	83.1
브라질	153.0	201.9	256.0	242.6	242.2
칠레	55.5	71.1	81.5	78.3	77.4
콜롬비아	34.1	40.9	58.3	61.6	58.5
멕시코	229.7	298.5	349.4	370.7	380.2
페루	27.0	35.6	46.3	45.9	41.6
베네수엘라	57.4	66.0	92.8	97.5	90.8
중남미	771.9	963.6	1,181.7	1,185.4	1,192.4

자료 | Global Ins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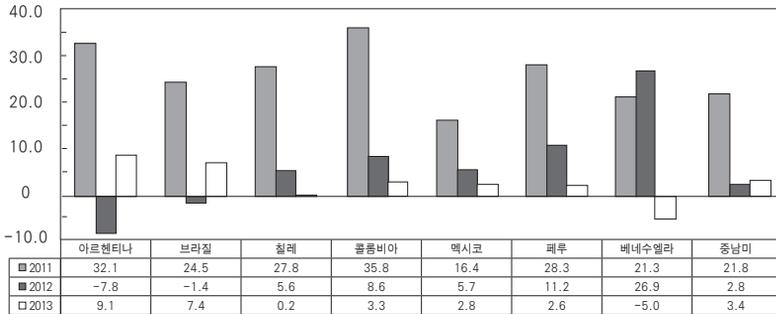
나. 수입

:: 중남미 경제의 성장세 둔화를 반영해 2013년 중남미 지역의 수입은 3.4% 증가에 그침.

| 국별로는 아르헨티나(9.1%), 브라질(7.4%), 콜롬비아(3.3%) 순으로 높은 수입 증가를 기록
| 그에 반해 베네수엘라(-5.0%)의 수입은 하락세로 전환

주요국의 수입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 대비)



자료 | Global Insight.

:: 지속적인 수입 증가세를 반영해 2013년 중남미 지역의 수입액은 사상 최고치인 1조 1,440억 달러를 기록

| 국별로는 멕시코가 3,812억 달러로 가장 큰 수입액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브라질(2,396억 달러), 칠레(750억 달러), 아르헨티나(715억 달러), 콜롬비아(586억 달러) 등이 이음.

주요국의 수입 추이

(단위: 10억 달러)

	2009	2010	2011	2012	2013
아르헨티나	37.1	53.8	71.1	65.5	71.5
브라질	127.7	181.8	226.2	223.1	239.6
칠레	40.1	55.5	70.9	74.9	75.0
콜롬비아	31.5	38.4	52.2	56.7	58.6
멕시코	234.4	301.5	350.8	370.8	381.2
페루	21.0	28.8	37.0	41.1	42.2
베네수엘라	41.7	38.5	46.7	59.3	56.3
중남미	695.6	883.5	1,076.4	1,106.1	1,144.0

자료 | Global Insight.

다.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 수출 증가세를 상회하는 높은 수입 증가세로 중남미 지역의 무역수지 흑자 폭은 2012년보다 크게 감소한 310억 달러를 기록

|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베네수엘라가 345억 달러로 가장 큰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아르헨티나(116억 달러), 브라질(26억 달러), 칠레(24억 달러)가 이음.

| 그에 반해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는 소폭의 무역적자를 기록함.

주요국의 무역수지 추이

(단위: 10억 달러)

	2009	2010	2011	2012	2013
아르헨티나	18.6	14.3	12.8	15.4	11.6
브라질	25.3	20.2	29.8	19.4	2.6
칠레	15.4	15.6	10.5	3.4	2.4
콜롬비아	2.6	2.4	6.1	4.9	-0.1
멕시코	-4.7	-3.0	-1.5	0.0	-1.0
페루	6.0	6.7	9.3	4.8	-0.6
베네수엘라	15.7	27.6	46.1	38.3	34.5
중남미	68.4	69.1	91.1	62.4	31.0

자료 | Global Insight.

:: 무역흑자 축소를 반영해 2013년 중남미 지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GDP대비 2.3%(1,285억 달러)로 2011년보다 0.7%포인트 증가

|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베네수엘라만이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

주요국의 경상수지 규모 추이

(단위: 10억 달러)

	2009	2010	2011	2012	2013
아르헨티나	11.0	1.4	-2.3	0.0	-4.4
브라질	-24.3	-47.3	-52.5	-54.2	-81.3
칠레	3.5	3.2	-3.3	-9.5	-10.5
콜롬비아	-5.0	-8.8	-9.7	-12.1	-12.9
멕시코	-7.9	-3.3	-12.3	-14.6	-17.7
페루	-0.7	-2.6	-3.3	-6.5	-10.4
베네수엘라	1.9	9.0	24.4	11.3	7.8
중남미	-26.2	-56.4	-66.3	-86.1	-128.5

자료 | Global Insight.

| 주요 국가 중에서는 페루(-4.9%, GDP대비), 칠레(-3.7%), 브라질(-3.7%), 콜롬비아(-3.4%) 등 이 중남미 평균이상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

주요국의 경상수지 추이

(단위: %, GDP 대비)

	2009	2010	2011	2012	2013
아르헨티나	3.6	0.4	-0.5	0.0	-0.9
브라질	-1.5	-2.2	-2.1	-2.4	-3.7
칠레	2.0	1.5	-1.3	-3.5	-3.7
콜롬비아	-2.1	-3.1	-2.9	-3.3	-3.4
멕시코	-0.9	-0.3	-1.0	-1.2	-1.4
페루	-0.6	-1.7	-1.9	-3.3	-4.9
베네수엘라	0.6	3.7	7.7	3.0	2.1
중남미	-0.7	-1.2	-1.2	-1.6	-2.3

자료 | Global Insight.

6. 정부 지출 및 재정수지

:: 2013년에도 중남미 지역의 정부지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그러나 그 증가세는 재정수지 악화를 우려해 중남미 국가들이 지출 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2012년보다 둔화됨.

| 2013년 중남미 지역의 정부지출 증가율은 2012년보다 1.5%포인트 하락한 2.5%를 기록
| 국별로는 아르헨티나(7.4%), 페루(5.3%), 칠레(3.7%), 콜롬비아(3.4%)가 중남미 평균 이상의 정부지출 증가율을 기록

주요국의 정부 지출 증가율 추이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아르헨티나	7.3	9.4	10.9	6.5	7.4
브라질	3.0	4.3	2.0	3.3	1.8
칠레	9.2	4.6	3.0	4.2	3.7
콜롬비아	5.9	5.6	3.6	5.1	3.4
멕시코	2.2	1.7	2.5	3.3	1.0
페루	16.5	7.9	6.2	9.4	5.3
베네수엘라	1.5	2.1	5.9	6.3	3.0
중남미	3.8	4.1	3.0	4.0	2.5

주 | 2013년은 추정치자료
자료 | Global Insight.

:: 정부지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세수 감소로 2013년 재정수지는 2012년에 비해 소폭 악화

| 2013년 중남미 지역의 재정수지적자(GDP대비)는 2012년에 비해 0.3%포인트 악화된 -2.9%를 기록

| 국별로는 칠레(0.7%)와 페루(1.8%)가 재정수지흑자를 기록해 중남미 국가 중에서 가장 건실한 재정을 운영

| 그에 반해 베네수엘라는 -11.2% 재정적자를 기록해 중남미 국가 중에서 재정상황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

주요국의 재정수지 추이

(단위: %, GDP 대비)

	2009	2010	2011	2012	2013
아르헨티나	-0.6	0.2	-1.7	-2.6	-2.2
브라질	-3.3	-2.5	-2.6	-2.5	-3.0
칠레	0.4	3.4	7.4	3.2	0.7
콜롬비아	-3.7	-3.5	-2.0	-1.8	-2.0
멕시코	-2.2	-2.8	-2.5	-2.6	-2.3
페루	-1.5	-0.1	1.9	2.0	1.8
베네수엘라	-8.2	-9.2	-12.2	-11.4	-11.2
중남미	-3.0	-2.4	-2.4	-2.7	-2.9

자료 | Global Insight.

7. 실업률

:: 중남미 지역에서 실업률은 경제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 2013년 중남미 지역의 실업률은 2012년보다 소폭 낮은 7.5%를 기록

| 2013년 실업률 하락은 과거와 달리 고용창출보다는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결과임.

:: 국별로는 아르헨티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에서 실업률이 2012년에 비해 하락

| 아르헨티나의 실업률은 정치경제 혼란을 반영해 2012년 7.2%에서 7.3%로 소폭 상승

::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콜롬비아가 11.0%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베네수엘라(7.5%)가 이음.

|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공식적으로 멕시코가 가장 낮은 실업률(4.9%)을 기록

주요국의 실업률 추이

(단위: %, 연말 기준)

	2009	2010	2011	2012	2013
아르헨티나	8.7	7.7	7.1	7.2	7.3
브라질	8.1	6.8	6.0	5.5	5.4
칠레	9.4	7.7	7.1	6.4	6.0
콜롬비아	12.9	12.5	11.5	11.2	11.0
멕시코	4.8	4.9	4.5	5.0	4.9
페루	8.4	7.9	7.7	6.8	5.9
베네수엘라	7.9	8.5	8.2	7.8	7.5
중남미	8.7	8.5	7.9	7.6	7.5

자료 | Global Insight.

III. 금융·외환지표

1. 환율

:: 2013년 중남미 대부분 국가에서 환율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로 극심한 혼란을 보이며 큰 폭으로 상승(자국통화가치 하락)함.

| 국별로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페루, 콜롬비아 순으로 환율 상승세가 현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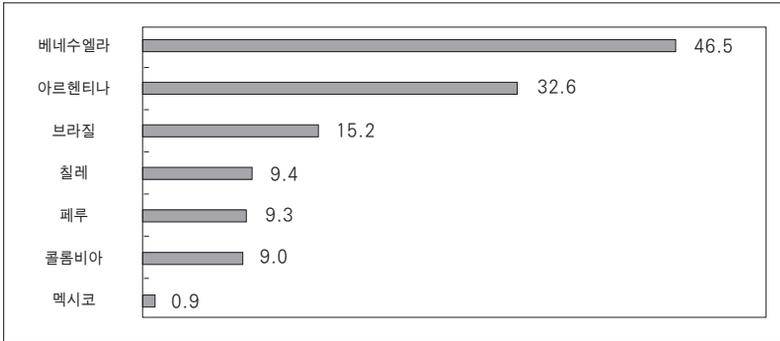
-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의 환율시장 혼란은 정치경제적 혼란에다 엄격한 외환통제에 따른 내부적 요인에 기인함.
- 그에 반해 브라질, 칠레, 페루, 콜롬비아의 환율시장 불안은 이들 국가가 미국의 양적완화의 큰 수혜를 받은 상황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높기 때문임.

| 그에 반해 멕시코의 환율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임.

- 낮은 경상수지 적자 규모, 미국 경제의 성장세 회복, 페냐 니에토 행정부의 성공적인 개혁정책에 힘입어 멕시코는 다른 중남미 국가와 차별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

주요국의 환율 변동률(2012/2013)

(단위: %)



주 | 플러스는 환율 상승(자국통화가치 하락), 마이너스는 환율 하락(자국통화가치 상승)을 의미
 자료 | 각국 중앙은행

주요국의 환율 추이

(단위: 달러 대비, 연말 기준)

	2009	2010	2011	2012	2013
아르헨티나	3.78	3.96	4.30	4.92	6.52
브라질	1.74	1.67	1.88	2.04	2.35
칠레	506.43	468.37	521.46	478.60	523.76
콜롬비아	2,044.23	1,989.88	1,942.70	1,768.23	1,926.83
멕시코	13.06	12.36	13.95	12.97	13.08
페루	2.89	2.81	2.70	2.55	2.79
베네수엘라	2.15	4.30	4.29	4.29	6.29

자료 | 각국 중앙은행

2. 금리

:: 경기부양을 위해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2013년 중남미 지역의 금리는 2012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8.5%)을 기록

|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아르헨티나의 금리가 전년보다 2.9%포인트 상승

| 그러나 브라질은 예외적으로 물가상승 압력 및 해일화 방어를 위해 2013년 4월부터 연이어 금리 인상을 단행함.

	2009	2010	2011	2012	2013
아르헨티나	11.6	9.2	10.7	12.0	14.9
브라질	10.1	9.8	11.7	8.5	8.2
칠레	12.9	11.8	12.4	13.5	13.2
콜롬비아	6.1	3.7	4.2	5.4	4.2
멕시코	5.4	4.4	4.2	4.2	3.8
페루	21.0	19.0	18.7	19.2	18.1
베네수엘라	20.6	18.0	17.4	16.2	15.6
중남미	10.1	8.9	9.8	8.7	8.5

자료 | Global Insight.

3. 소비자물가 상승률

:: 수입물가 상승에 힘입어 2013년 중남미 지역의 소비자물가는 2012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함.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자물가는 정부의 목표치 내에서 머뭇.

|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베네수엘라(38.5%)가 가장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함. 인플레이션 통제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아르헨티나도 중남미 평균이상의 소비자물가상승률(10.6%)을 나타냄.

| 브라질의 소비자물가상승률도 2012년 5.4%에서 2013년에는 6.2%로 크게 증가함.

| 그러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2년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연말 기준)

	2009	2010	2011	2012	2013
아르헨티나	6.3	10.5	9.8	10.0	10.6
브라질	4.9	5.0	6.6	5.4	6.2
칠레	0.4	1.4	3.3	3.0	1.9
콜롬비아	4.2	2.3	3.4	3.2	2.0
멕시코	5.3	4.2	3.4	4.1	3.8
페루	2.9	1.5	3.4	3.7	2.8
베네수엘라	28.6	29.1	27.1	21.1	38.5
중남미	6.3	6.0	6.5	5.9	7.0

자료 | Global Insight.

4. 주가

:: 2013년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가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에 따른 환율시장 불안, 중국의 경제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와 이로 인한 성장세 둔화로 하락세로 전환

| 국별로는 페루 주가가 전년대비 23.6% 급락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브라질(-15.5%), 칠레(-13.5%), 콜롬비아(-11.1%), 멕시코(2.2%)가 그 뒤를 이음.

주요국의 주가 추이

(단위: 포인트, 연말 기준)

	2009	2010	2011	2012	2013
아르헨티나	2,318	3,524	2,463	2,854	5,391
브라질	68,588	69,305	56,754	60,952	51,507
칠레	16,631	22,979	20,130	21,070	18,227
콜롬비아	11,569	15,497	12,703	14,716	13,071
멕시코	32,120	38,551	37,078	43,706	42,727
페루	14,167	23,375	19,475	20,629	15,753
베네수엘라	55,081	65,338	117,036	471,437	2,736,585

자료 | Bloomberg.

5. 외환보유고

:: 지난 10년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여 오던 중남미 지역의 외환보유고는 중남미 각국의 경상수지 악화에도 환율시장 방어를 위한 외환보유고 사용으로 2013년 들어 감소세로 전환

| 2013년 10월 말 기준으로 중남미 지역의 총 외환보유고는 전년보다 약 36억 달러 감소한 8,320억 달러에 그침.

:: 국별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베네수엘라의 외환보유고가 감소한데 반해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의 외환보유고는 오히려 소폭 증가함.

| 아르헨티나의 외환보유고는 전년보다 101억 달러 감소했으며, 브라질(-86억 달러), 베네수엘라(-81억 달러)가 그 뒤를 이음.

| 그에 반해 멕시코의 외환보유고는 전년보다 101억 달러 증가함.

주요국의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말 기준)

	2009	2010	2011	2012	2013
아르헨티나	47,967	52,145	46,376	43,290	33,232
브라질	238,520	288,575	352,012	373,147	364,505
칠레	25,371	27,864	41,979	41,640	40,817
콜롬비아	24,992	28,464	32,303	37,474	43,298
멕시코	99,893	120,587	149,209	167,050	177,162
페루	33,175	44,150	48,859	64,049	66,453
베네수엘라	35,830	27,911	29,892	29,891	21,750
중남미	567,042	655,643	773,885	835,700	832,061

주 | 2013년은 10월 말 기준
자료 | ECLAC.

6. 국가신용등급

:: 2014년 2월 말 기준으로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등이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등급의 평가를 받음.

| Moody's, S&P, Fitch 등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모두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판정을 받고 있는 국가는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임.

|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칠레가 가장 투자등급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 그에 반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등은 세 기관 모두로부터 투자 부적격 등급을 받음.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

(2014년 2월말 기준)

	Moody's		S&P		Fitch	
	등급	전망	등급	전망	등급	전망
과테말라	Ba1 2010-06-01	Stable 2008-12-18	BB 2006-07-17	Negative 2011-08-02	BB+ 2006-02-22	Stable 2006-02-22
도미니카공화국	B1 2010-04-22	Stable 2011-06-13	B+ 2011-06-13	Stable 2011-06-13	B 2006-05-05	Stable 2012-12-11
멕시코	A3 2014-02-05	Stable 2014-02-05	BBB+ 2013-12-19	Stable 2013-12-19	BBB+ 2013-05-08	Stable 2013-05-08
베네수엘라	Caa1 2013-12-16	Negative 2013-12-16	B- 2013-12-13	Negative 2013-12-13	B+ 2011-04-11	Negative 2012-04-04
볼리비아	Ba3 2012-06-07	Stable 2012-06-07	BB- 2012-05-18	Stable 2012-05-18	BB- 2012-10-02	Stable 2012-10-02
브라질	Baa2 2011-06-20	Positive 2011-06-20	BBB 2011-11-17	Negative 2013-06-06	BBB 2011-04-04	Stable 2011-04-05
아르헨티나	B3 2005-06-29	Negative 2012-09-17	CCC+ 2013-09-10	Negative 2013-09-10	CC 2012-11-27	Negative 2012-11-27
에콰도르	Caa1 2012-09-13	Stable 2012-09-13	B 2012-06-07	Stable 2012-06-07	B 2013-10-18	Stable 2013-10-18
엘살바도르	Ba3 2012-11-05	Stable 2012-11-05	BB- 2011-01-14	Negative 2012-12-21	BB- 2013-07-16	Negative 2013-07-16
우루과이	Baa3 2012-07-31	Positive 2012-01-26	BBB- 2011-07-25	Stable 2011-07-25	BBB- 2013-03-17	Stable 2013-03-17
칠레	Aa3 2010-06-16	Stable 2010-06-16	AA- 2012-12-26	Stable 2012-12-26	A+ 2011-02-01	Stable 2008-11-10
코스타리카	Baa3 2010-09-09	Stable 2010-09-09	BB 2005-06-10	Stable 2008-10-10	BB+ 2011-03-04	Stable 2000-05-19
콜롬비아	Baa3 2011-05-31	Stable 2011-05-31	BBB 2013-04-24	Stable 2013-04-24	BBB 2013-12-10	Stable 2013-12-10
파나마	Baa2 2012-10-31	Stable 2012-10-31	BBB 2012-07-02	Stable 2012-07-02	BBB 2011-06-02	Stable 2011-06-02
파라과이	Ba2 2014-02-04	Positive 2014-02-04	BB- 2011-08-30	stable 2011-08-30	BB- 2013-01-10	Stable 2013-01-10
페루	Baa2 2012-08-16	Positive 2011-03-21	BBB+ 2013-08-19	Stable 2013-08-19	BBB+ 2013-10-23	Stable 2013-10-23

자료 | Moody's, S&P, Fitch.

IV. 기타 지표

1. 중남미 교육의 질 평가

:: 중남미 국가(19개국 기준) 중에서는 아르헨티나가 교육의 질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

| 아르헨티나에 이어서는 우루과이(2위), 칠레(3위), 베네수엘라(4위), 콜롬비아(5위) 등이 교육의 질이 양호한 국가군으로 분류

| 그에 반해 아이티,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은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교육의 질이 가장 열악한 국가로 평가

중남미 교육의 질(Latin Education Index 2013) 순위

순위	순위 변화	국가	점수
1	+1	아르헨티나	22.05
2	-1	우루과이	21.43
3	동일	칠레	21.12
4	동일	베네수엘라	20.94
5	+5	콜롬비아	20.28
6	+1	브라질	20.13
7	+2	멕시코	19.85
8	-3	볼리비아	19.82
9	-1	파나마	19.81
10	+1	코스타리카	19.72
11	-5	페루	19.58
12	+1	에콰도르	18.69
13	-1	파라과이	18.69
14	동일	도미니카공화국	18.46
15	동일	엘살바도르	17.78
16	동일	온두라스	17.72
17	동일	니카라과	16.76
18	동일	과테말라	16.39
19	동일	아이티	10.32
중남미 평균			18.92

주 | 중남미 교육의 질 지수는 초등교육의 질, 25세 이상 성인의 평균교육년수, 고등교육년수, 총등락률, 문자해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 자료 | Latin Business Chronicle(2014.2).

2. 중남미 글로벌화 평가

- :: 중남미 국가(18개국 기준) 중에서는 파나마가 가장 글로벌화가 높은 국가로 조사
 | 그밖에 니카라과(2위), 온두라스(3위), 칠레(4위), 코스타리카(5위) 등이 글로벌화가 높은 국가
 군으로 분류
 | 그에 반해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글로벌화가 낮은 국가로 평가

중남미 글로벌화(Latin Globalization Index 2013) 순위

순위	순위 변화	국가	지수
1	동일	파나마	21.66
2	동일	니카라과	16.04
3	동일	온두라스	16.02
4	동일	칠레	14.13
5	동일	코스타리카	13.84
6	동일	파라과이	12.67
7	+4	볼리비아	12.43
8	동일	도미니카공화국	12.30
9	동일	엘살바도르	12.12
10	-3	우루과이	12.08
11	+1	멕시코	10.95
12	-2	에콰도르	10.43
13	+1	아르헨티나	9.76
14	-1	페루	9.70
15	동일	과테말라	9.18
16	+1	베네수엘라	9.18
17	-1	콜롬비아	9.14
18	동일	브라질	7.92
중남미 평균			12.20

주 | 글로벌화 지수는 GDP대비 수출입, 외국인직접투자(FDI), 관광수입, 해외송금 유입 비중, 인터넷 보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자료 | Latin Business Chronicle(2013.11).

3. 중남미 노동환경 평가

:: 중남미 국가(18개국 기준) 중에서는 칠레가 가장 노동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 그밖에 멕시코(2위), 과테말라(3위), 파나마(4위), 콜롬비아(5위)도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노동 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 그에 반해 온두라스(18위), 브라질(17위), 볼리비아(16위) 등은 노동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

중남미 노동환경(Latin Labor Index 2013) 순위

순위	순위 변화	국가	점수
1	동일	칠레	318.5
2	동일	멕시코	278.8
3	동일	과테말라	195.7
4	동일	파나마	192.2
5	+1	콜롬비아	181.4
6	+1	우루과이	178.9
7	-2	아르헨티나	175.9
8	동일	도미니카공화국	174.4
9	+2	니카라과	168.0
10	동일	페루	164.7
11	-2	코스타리카	163.8
12	+1	엘살바도르	161.7
13	-1	베네수엘라	159.4
14	동일	에콰도르	149.6
15	동일	파라과이	141.8
16	+1	볼리비아	133.0
17	-1	브라질	130.7
18	동일	온두라스	104.5
중남미 평균			176.3

주 | 중남미 18개국에서 모든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18개 변수를 고려해 평가 자료 | Latin Business Chronicle(2013.12).

4. 중남미 세제 환경 평가

:: 중남미 국가(18개국 기준) 중에서는 칠레가 세제환경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
 | 칠레에 이어 파라과이(2위), 엘살바도르(3위), 페루(4위), 우루과이(5위)도 세제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 그에 반해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브라질(18위), 볼리비아(17위), 아르헨티나(16위) 순으로 세제환경
 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

중남미 세제환경(Latin Tax Index 2013) 순위

순위	순위 변화	국가	점수
1	동일	칠레	7.63
2	동일	파라과이	8.72
3	+1	페루	10.07
4	+2	우루과이	10.13
5	-2	엘살바도르	10.23
6	+1	온두라스	10.24
7	-2	도미니카공화국	10.48
8	동일	과테말라	10.75
9	동일	코스타리카	10.99
10	+2	파나마	11.61
11	-1	멕시코	11.68
12	-1	니카라과	11.99
13	동일	에콰도르	12.38
14	동일	콜롬비아	12.86
15	+1	베네수엘라	18.30
16	-1	아르헨티나	18.47
17	동일	볼리비아	21.51
18	동일	브라질	36.42
라틴아메리카 평균			13.58

주 | 중남미 세제환경 지수는 중남미 18개국의 법인세율, 이윤세율, 세금 납부 시간, 세금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자료 | Latin Business Chronicle(2013.6).